

사회

# 기업유치 경쟁 vs 실정법 준수 딜레마 행정절차 생략 이명흠 군수 기소

## 장흥~제주 카페리 부두 조성 법규위반 혐의

기업유치를 위한 민선지자체의 행정서비스와 실정법 사이의 딜레마가 결국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게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17일 갑작스런 허가 없이 공유수면 매립 등 여객선 취항에 필요한 공사를 추진한 혐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명흠(62) 장흥군수와 임태영(59) 전 장흥부군수를 불

구속 기소했다. 장흥군은 지난해 초 장흥 노력항~제주 성산포간 새 카페리 노선을 개발할 경우 관광·물류 확대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클것이라 보고 대구의 대아그룹을 대상으로 해운사 유치노력을 벌여왔다. 이명흠 군수등은 전용 부두 조성어 해운사 유치를 필수적이라고 보고 지

난해 3월~6월 사이 ▲매립면허 ▲해역이용 협의 ▲사전 환경성 평가 ▲해양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노력항 주변 매립 공사를 벌여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의 수사를 받았다. <광주일보 3월 29일 10면> 검찰은 장흥군이 노력항~성산포간 카페리호 취항일자를 맞추기 위해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방파제나 배가 부두에 닿을 때 쓰이는 접안시설 공사과정에서 특기특색과 관련없는 공사인데도 특허공법이 적용된다고 입찰공고

를 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직권남용 관리행사방해)로 장흥군 7급 공무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해당업체 관계자를 구속기소했다. 이들 사이의 금품수수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밖에 검찰은 방파제 공사를 하면서 하청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건설산업 기본법 위반)로 원·하청 업체 관계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 승객 63만명·차량 9만7천대 실어 날라... 토요일 시장 등 활기

### 장흥 오렌지오 취향 1년 효과는

지난해 7월3일 장흥 노력항과 제주 성산포항을 잇는 오렌지1호(2700t급) 취향으로 장흥이 전남 중부지역에서 제주도를 오가는 가장 빠른 배길로 자리를 잡았다. 1년이 지난 지난달 7월3일에는 4599t급 오렌지2호가 취향함으로 써 장흥은 전남은 물론 부산을 비롯한 영남권 관광객까지 제주로 연결하는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됐다. 1일 3회 왕복하는 장흥~제주간 오렌지1, 2호 쾌속선이 그동안 실어나른 누적 승객과 운송차량 실적은 괄목할만 하다. 오렌지1호는 지난 15일까지 승객 56만4300명과 차량 8만3660대를 실어 날랐다. 지난달 3일 취향한 오렌지2호는 이달 15일까지 승객 7만2230명과 차량 1만3640대가 이

용해 모두 63만6600명의 승객과 9만7300대의 차량이 장흥과 제주를 오갔다. 이처럼 장흥 노력항이 제주도를 오가는 함안으로 인기를 끄는데는 양 지역의 직선거리가 불과 110km로 매우 가깝고 운항 시간이 1시간 59분에서 2시간 20분대로 짧으며 쾌속선에 승용차를 싣고 갈 수 있어 이용객들이 큰 매력을 느끼고 있다. 오렌지 1, 2호의 운항은 장흥군 오렌지2호는 이달 15일까지 승객 7만2230명과 차량 1만3640대가 이

해 3억8700만원의 직접 세수 효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역경제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꽤 큰 것으로 추산된다. 오렌지호를 이용하는 외부 관광객들이 정박한 토요일의 한우를 비롯해 지역 먹거리 소비증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군은 파악하고 있다. 또 역불산 우드랜드 등 휴양 및 숙박시설에도 연해 파급효과를 미쳐 장흥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 화물차 불법주차에 또 사망 사고

## 광주시 단속 헛구호... 신안동서 추돌 사망 운남동 일가족 3명 포함 울들어 4명 숨져

광주의 한 도심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된 화물차를 추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또다시 일어났다. 올 들어서만 모두 4명이 유사한 사고로 숨졌음에도 광주시와 각 구청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일회성에 그쳐 사실상 사고를 부추기고 있다. <울해만 불법 주정차 추돌사고로 4명 숨져>=17일 새벽 1시20분께 광주

시 북구 신안동 신안사거리 L슈퍼 인근 도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가던 유모(26)씨가 불법 주정차 된 25t 화물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유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은 유씨가 갓길에 불법 주차된 트럭을 미처 피하지 못 하고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불법

주차한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서도 관련 법(도로교통법 32조)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3월 23일 새벽 3시13분께 광주시 광산구 운남 주공아파트 3단지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김모(42)씨가 몰던 승용차가 갓길에 주차된 15t 화물차 왼쪽 뒷바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김씨의 아내(38)·아들(13)·딸(12) 등 3명이 숨졌다. <단속 헛구호>=사고가 난 장소는 대부분 심야에 대형 화물차가 상습적으로 주정차 돼 있어 평소에도 사고 위험이 컸던 곳이다. 지난 3월 일가족

이 참변을 당하자 광주시와 각 구청은 차고지 이탈 밤샘 주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폈다. 그 결과 522건을 적발, 165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문제는 지속적인 단속보다는 일회성 단속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단속기관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광주 A구청 관계자는 "아파트 주변 이면도로에 밤샘 주차 차량이 많은데, 화물차량의 야간차고지 주차 안내와 함께 주요 도로 상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 "4개월간 노예계약 맺고 폭행당했다"

### 광주 고3생 주장... 시교육청 진상 파악

광주의 한 고교 3학년 학생이 같은 반 친구의 강요로 일명 '노예계약'을 맺고 4개월 동안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광주시교육청이 진상파악에 나섰다.

1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A고교 3학년 B(18)군의 학부모가 최근 아들이 같은 반 친구로부터 '돈을 흥기로 위해 노예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한 뒤 학교에서 심부름을 시키고 3~4일 간격으로 돈을 갈취했다"며 "가해학생의 폭행과 괴롭힘은 지난 4월부터 시작돼 최근까지도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학교측의 조사결과 C군은 '10여만 원의 돈을 빼앗은 점'은 인정했으나, 흥기로 위협한 것은 사실임을 입회지

는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의 같은 반 학생 40여명은 교실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졌음에도 지난 4월 학교측의 교내폭력 설문조사, 최근 담임 교사와의 면담에서도 합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장은 "불미스러운 일에 미리 대처하지 못한 학교의 잘못이 크지만, 학생들이 귀찮은 해줬더라도 피해가 장기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비정한 이웃

## 시비 같은 셋집 노인 살해 시신 유기-43일만에 자수

사소한 시비 끝에 한집에 사는 세입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이 범행 43일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세입자 임모(49)씨는 지난달 6일 오후 8시께 광주시 서구 관천동 자신의 집 마당에서 같은 집에 세들어 사는 이모(70)씨와 마주쳤다. 임씨가 사는 집은 네 칸짜리 '쪽방'으로 임씨와 이씨를 포함한 4명의 세입자가 살고 있다. 전날 회사에서 해고 당한 임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방에

들어서려던 순간, "슬리퍼 정돈 좀 제대로 하라"는 이씨의 말을 듣고 멈춰섰다. 이씨의 권장에 화가 난 임씨는 슬리퍼를 집어든 뒤 이씨를 향해 던졌고, 얼굴에 맞은 이씨도 격분해 실랑이를 벌였다. 임씨는 이씨를 방으로 끌고 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서구 덕흥동 다리 밑에 시신을 유기했다. 17일 서부경찰에 자수한 임씨는 경찰에서 "직장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이씨가 기분 상한 말을 해 순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나원침 (8382) 김종두



## 대형 아케이드 게임장 불법 환전 업주 붙잡아 목포경찰

목포경찰은 17일 대형 아케이드(Arcade)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 등 불법 행위를 한 A(45)씨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목포의 한 건물에서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아케이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수수료(10%)를 받고 게임 점수에 따라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고 외부에 환전상을 두고 손님과 은밀하게 접촉하도록 했으며 심의받은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법 환전으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케이드 게임은 전자 게임의 하나로 슈팅게임, 퍼즐 게임, 스포츠 게임 등이 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 경찰관 집 털려다... 격투 끝 붙잡혀 상나팔

○~30대 절도범 이 심야에 대담하게 경찰관 집을 털려다 붙잡혀 경찰서행. ○~전주완산경찰에 따르면 배모(37)씨는 지난 16일 새벽 5시40분께 전주에 사는 전주완산경찰서 아중지구대 소속 김모(55) 경위의 집에 침입하던 중 문 여는 소리를 듣고 때마침 잠에서 깬 김 경위와 마주치자 도망갔다는 것. 김 실장에 따르면 사고조사위는 블랙박스 음과 발생기의 손상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아래 최근 음파를 탐지해 블랙박스를 찾는 방법을 포기했다. 대신에 소나와 무인 원격조정 심해잠수정을 갖춘 조사선을 투입해 동체의 위치를 찾는 쪽으로 수색 방향을 튼 상황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현혈하는 공무원

광주시 북구청 공무원들이 17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현혈의 집'에서 현혈을 하고 있다. 여름철 혈액 부족현상이 발생한 가운데 진행된 현혈에는 공무원과 주민 등 100명이 참여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아시아나 사고 화물기 동체 위치 찾았다

"2~3주내 기체 꼬리 인양" 지난달 28일 제주도 인근 해상으로 추락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의 동체 위치가 확인돼 곧 인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한영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장은 17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아직 블랙박스를 찾지는 못했지만 동체 잔해물 절반 이상의 위치를 파악했다"며 "우선 블랙박스 장착 가능성이 높은 기체의 꼬리 부분을 먼저 인양하고

나머지 기체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기체 꼬리 부분을 끌어올리는 데까지는 2~3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실장에 따르면 사고조사위는 블랙박스 음과 발생기의 손상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아래 최근 음파를 탐지해 블랙박스를 찾는 방법을 포기했다. 대신에 소나와 무인 원격조정 심해잠수정을 갖춘 조사선을 투입해 동체의 위치를 찾는 쪽으로 수색 방향을 튼 상황이다. /연합뉴스

# 14만 합격자가 말한다

## 2012 학년도 대학편입은 김영과 함께

상위권 대학편입대비, 자타공인 대한민국 No.1  
자연계열 편입합격의 열쇠, 지방 유일 실강의!  
편입영어(이론과정/문제풀이)    편입수학(미,적분과정/선형대수)    전남대 편입 HotPoint!, 전남대 맞춤형 Teps- Teps 대개강 (Teps + 면접대비)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기여편이하인 미인보구권**  
광주 동부경찰서 뒤 (062) 227-8088  
www.kimyong.co.kr    개강 : 9월 1일